

여름學期の 教育的 活用方案

張 錫 祐
(仁川大 教育學科 助教授)

인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I. 序 言

1984學年度부터 시행되는 大學의 學期制改編은, 비록 그것이 大學教育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學期制는 그 성격상 단순한 學事日程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大學의 學事行政을 위한 基本的인 「骨格」을 제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教育課程의 編成이나 그 運用方法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學期制는 2學期制로 되어 있으며, 해방 이후 近 40년에 이르는 동안 學年初開始日을 계절에 맞춰 조정하는 등의 부분적인 변화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大學의 學期制改編도 근본적으로 2學期制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夏季學期の 開設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大學에서의 活用方法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3學期制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大學教育 發展史에 기록될 커다란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1學期와 겨울放學의 단축을 통하여 가능해진 여름放學의 延長이, 어떻게 夏季學期로서의 教育的 意義를 살릴 수 있을 것

II. 放學期間 調整의 意味

이번에 마련된 大學 學期制改編의 기본적인 목적을, 첫째 현행의 學期制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여름放學을 연장 활용함으로써 夏季學期로서의 가능성을 갖도록 한 점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1學期 20週, 2學期 16週로 불균형하게 운영되고 있는 學期制를, 1, 2學期 각각 16週로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겨울放學을 단축하고 여름放學을 연장하는 方案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여름放學은 현행의 7週에서 12週로 대폭 연장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각각 16週로 조정된 1, 2學期の 學事運營을 효율화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현실을 보면 실제의 授業日數는 각종 行事 등으로 인하여 1學期 15~16週, 2學期 12~13週 線을 크게 넘어 서지 못하는 것이 常例였다. 때문에 특히 2學期の 경우는 정상적인 學科進度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常識처럼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1學期の 단축은 그나마 '正常에 가깝게' 운영되던 1學期の 수업마저 不實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교육을 위해 쓰여질 때는 주저하고 인식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대학은 난방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고, 절대다수의 初·中·高等學校는 요즘은 구경하기조차 어렵게 된 「조개탄」을 유일한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學期制改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겨울放學의 단축은, 많은 대학에 豫算의 압박이라는 어려움을 줄 것이지만, 學習의 能率性和 教育의 效果에 대해 새로운 認識을 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Ⅲ. 여름學期の 教育의 必要性

學期制改編에 따라 현행의 7週에서 12週로 대폭 연장되는 여름放學은, 새로운 위험성과 새로운 可能性을 함께 가지고 있다.

새로운 위험성이란, 學生指導의 영역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다. 여름放學은 특히 젊은 大學生들의 여름放學은 산과 들과 바다로 뒤흔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계절이며, 그 낭만과 보람 못지 않게 갖가지의 事故와 脫線 또한 우려되는 계절이다. 더우기 大學 新入生の 경우 高校 시절의 갖가지 統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첫번째의 여름放學이어서 더욱더 값지고 위협스러운 계절이 된다. 따라서 生活指導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르는 각별한 指導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可能性이란 긴 여름放學을 夏季學期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여름放學에는 많은 대학들이 Summer School을 開設, 주로 學點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學點의 再取得 또는 補充의 기회를 주어오고 있다. 그 밖에도 TOEFL 등의 外國語講座, 컴퓨터講座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教養講座의 성격을 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大學의 경우, 아직도 여름放學 또는 겨울放學을 學期로 활용하는 데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大學의 學事運營에 있어서 현행의 2學期制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70年代初부터 實驗大學을 통하여 추진해 온 갖가지의 學事改革 事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화시켜 주었다.

實驗大學을 통한 大學의 學事改革事業은 大學 教育의 質的 刷新과 近代化를 위한 의욕적인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大學의 學事運營과 직결되는 부분만을 열거하여 본다면 1) 大學에서의 履修學點을 종래의 160學點에서 140學點으로 下向調整하고 授業運營을 內質化하며, 2) 專攻科目의 學點數를 대폭 축소하고 教養·基礎科目의 比重을 높이며, 3) 複數專攻의 길을 터 주어 副專攻의 이수가 가능하게 하고, 4) 學業成績이 우수한 學生은 그 能力에 따라 早期卒業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學事改革 事業의 功過에 대하여는 일치되기 어려운 見解의 差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80年の 소위 7·30教育改革에 따라 卒業定員制가 채택됨으로써, 새로운 運營體制의 定立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學事改革 事業의 취지에 따르는 大學의 學事運營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大學에서의 副專攻 履修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副專攻은 主專攻과 유사한 영역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副專攻 영역의 必須科目 중 21學點만을 이수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확대된 教養·基礎科目, 18學點線으로 묶여 있는 學期當 履修限界 등으로 인하여, 副專攻의 이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일부의 副專攻 과정에서는 專攻必須 영역의 基礎科目을 이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學點取得에 어려움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은 教職科目의 이수이다. 그동안 다소의 변동은 있었지만, 4年間 16~20學點을 요구하는 教職課程은, 여타의 副專攻은 물론 새로운 時代狀況에 적용하기 위한 一般 教養科目의 이수에 커다란 制約條件이 되고 있다.

셋째, 早期卒業制의 실시에 있어서도 현행의 學期當 學點制限은 그 적용대상을 크게 제한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學事改革 事業은 보다

다양한 教育課程의 운영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의 2學期制는 이에 대하여 많은 制約을 주고 있는 것이다. 副專攻·早期卒業制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많은 追加學點의 이수를 요구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大學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敎職科目의 이수와 새로운 社會的 必要에 부응하기 위한 폭 넓은 一般 敎養科目의 확대현상은 더 많은 追加學點의 이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學期當 18學點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의 制度下에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學期當 學點取得 基準을 손쉽게 上向調整하는 것은, 4年間의 履修學點을 160學點에서 140學點으로 下向調整했던 근본 정신을 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學點의 下向調整은 보다 충실한 授業, 빈번한 學習課題의 부과, 세미나·實驗實習 등이 강화된 授業方法 등 일련의 深化되고 內實化된 授業運營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새로운 「第3의 學期」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夏季學期는 바로 이러한 第3의 學期를 위한 한 가지 형태일 수 있는 것이다.

Ⅳ. 여름學期の 教育的 活用

여름放學이 夏季學期로서의 機能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는, 의미있는 教育的 活用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教育的 活用方案은 敎養講座 등의 教育的 프로그램단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正規 教育課程 運營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夏季學期の 教育的 活用方案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夏季學期の 기본적인 性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夏季學期를 1·2學期와 同格으로 보아 正規의 學期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이번의 學期制改編은 매우 限定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夏季學期の 基本 性格은 2學期制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補助學期」로 규정짓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夏季學期の 教育的 活用方案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안이 생각될 수 있겠다.

첫째, 副專攻 履修生을 위한 강좌의 개설이다. 副專攻制의 채택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社會的 要求와 職業世界에 적응하는 能力을 높이는 데 그 뜻이 있다. 하나의 專攻課程만을 마치고 社會에 進出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專攻(副專攻)을 함께 마치게 함으로써, 個人의 측면에서는 職業選擇의 폭을 넓히고 社會의 측면에서는 필요한 人的 資源을 융통성 있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副專攻 이수는 가능한 한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副專攻의 이수를 위한 學點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정규의 1·2學期중에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夏季學期の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운영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정규의 學期로서는 충족될 수 없는 不足學點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副專攻 영역의 必須專攻科目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그 科目들의 基礎科目으로서 先修되어야 할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基礎科目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실제의 이수에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學點의 補充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補充學點 이수의 기회를 주는 일이다. 一定 期間 休學 후 복학한 학생의 경우 그동안의 教育課程 조정으로 追加 受講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編入學한 학생의 경우는 教育課程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補充學點이 필요하게 된다. 이들 復校生이나 編入生의 경우는 補充學點 이수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卒業學點 취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세째, 여러 가지 사정으로 學點取得에 실패한 학생들을 위한 再受講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 방안은 현행의 Summer School이나 Winter School을 통하여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再受講은 卒業에 필요한 學點의 취득을 위한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일 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卒業定員制 실시 이후 강화되고 있는 學事懲戒나, 혹은 獎學生 選拔의 기준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學期末 成績評定の 결과 學事警告를 받은 학생이 夏季學期에서 좋은 成績을 얻었다 하여 學事警告를 免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네째, 夏季學期는 갖가지의 短期講座를 개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요즈음 크게 강조되고 있는 外國語 강좌는 물론, 컴퓨터 강좌, 教養講座 등 평소의 학기중 受講하기 어려운 學習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科學技術의 놀라운 발전과 이에 따르는 社會生活 양식의 급격한 변화는 專攻教育 이외의 영역에서도 많은 學習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大學은 이러한 社會的 必要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夏季學期는 새로운 教育課程 또는 教育 프로그램을 研究·實驗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현대의 大學教育을 보다 효과적으로 運營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研究하고 實驗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教育課程이나 教育 프로그램의 어느 것은, 채택과 동시에 실제 教育에 適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夏季學期를 이용하여 實驗적으로 적용하고 그 效用성과 問題點을 충분히 분석·검토함으로써 試行錯誤를 방지하고 發展의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言

이번에 이루어진 學期制의 改編은 大學教育에 있어서 하나의 「모험」일 수도 있다. 첫째로 1學期の 授業期間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1學期 수업마저 2學期처럼 不實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과, 둘째로 겨울放學을 단축함으로써 에너지의 절약정책을 外面하고 난방예산의 追加 소요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여름放學의 연장으로 학생들의 生活指導에 보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學期制改編은 해 볼 만한 모험이며, 大學教育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前進일 수도 있다. 그 핵심은 첫째로, 16週로 조정된 1·2學期の 수업운영을 얼마나 內實化하는가 하는 점과, 둘째로 기나긴 여름放學을 어떻게 夏季學期로서 定着·發展시키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70年代初부터 이루어진 大學 學事改革事業의 功過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채로, 우리의 大學教育은 卒業定員制라는 새로운 産苦를 겪고 있으며, 그 속에서 또 다시 學期制改編의 한 발을 내디디었다.

이러한 모든 變化가 發展의 계기로 연계되기 위하여는 大學人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